

전남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, 효정원 등 3곳 찾아 추석 온정 전달

효정원·나주실버케어센터·해뜨는어린이집에 각 50만원씩 지원
명절 위문과 지역 소비 촉진 연계한 상생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
류화열 지사장 “나눔과 상생 가치 실천하는 사회공헌 이어갈 것”

이성호 기자 (seongho2015@hanmail.net)

기사입력 2026-09-16 16:48:26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, 효정원 등 3곳 찾아 추석 온정 전달_장애아동복지시설인 해뜨는어린이집(좌측부터 유성순 원장, 김준현 농지은행관리부장)©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(지사장 류화열)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에 지원금을 전달하고,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까지 연계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.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16일 나주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아동복지시설 등 3곳을 차례로 방문했으며,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인 효정원과 나주실버케어센터, 장애아동복지시설인 해뜨는어린이집이다.

나주지사는 각 시설에 50만원씩 모두 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했으며, 시설별 지원 방식은 일부 차이를 뒀다. 효정원과 해뜨는어린이집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시설 관계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, 동시에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만큼 복지시설 지원이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.

나주실버케어센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했으며, 나주지사는 이번 활동을 단순히 추석을 앞둔 시설 위문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와 함께할 수 있는 상생형 사회공헌으로 기획했다. 복지시설이 실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 내 상품권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.

나주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.

류화열 나주지사장은 “추석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나주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, 효정원 등 3곳 찾아 추석 온정 전달_노인요양시설 효정원(좌측부터 김준현 농지은행관리부장, 김영순 사회복지사, 양대천 수자원관리부차장)©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제공

이 기사 주소

<https://gj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6/09/16/2026091600309.html>

